

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을 통해 본 북한경제

최지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choijy@kinu.or.kr

I. 서론

시장의 물가와 환율 변동은 이원화된 북한경제에서 시장의 소비재 및 외화수급 여건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2000년대 초반 북한 당국은 소비재와 일부 생산재의 시장거래를 인정한 바 있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시도된 북한식 개혁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서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에 대한 인정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북한경제 내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자원배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장의 물가·환율에 근거한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한 판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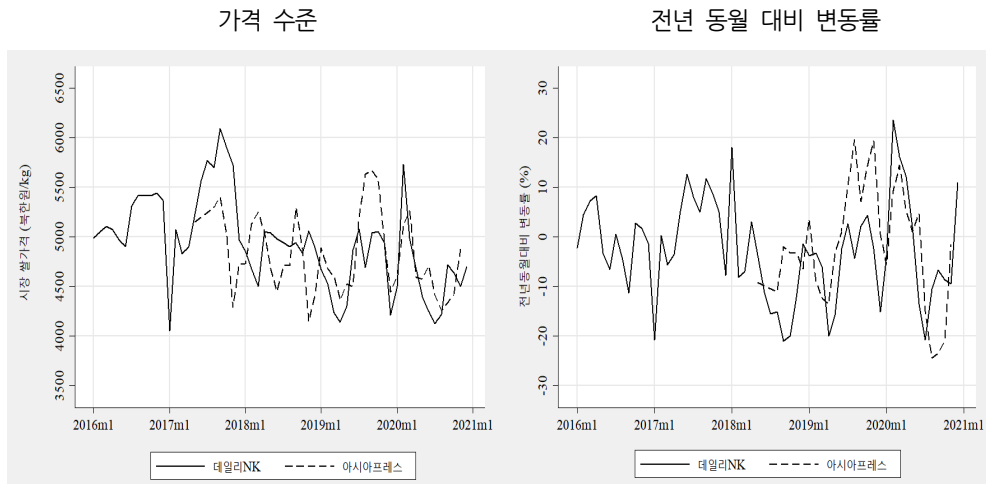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북한시장의 물가·환율 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하여, 2020년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시장 물가·환율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 자료들은 북한 이탈주민 네트워크에 기반한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데일리NK’와 ‘아시아프레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발표된다. ‘데일리NK’는 평양, 신의주, 해산 지역, ‘아시아프레스’는 양강도·자강도 지역의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을 수집하여 발표한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북한농업동향』은 ‘데일리NK’의 자료조사에 기반하여 북한시장의 식료품, 농자재 가격을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이들 자료의 한계와 관련하여, 본고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할 부분을 두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시장 가격·환율은 통계 당국이 체계적으로 수집·조사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 개별 품목의 규격, 품질, 원산지(국산/수입)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 이는 단순히 시장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규격, 품질의 변화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이 자료들은 북한의 특정 지역의 시장 물가·환율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시장물가의 경우, 관찰되지 않는 품목들이 전혀 다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본고에서 언급하는 시장가격은 대체로 식료품, 정제유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외에 북한가계가 소비하는 공산품, 서비스에 대한 자료가 제외되어 있어 북한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 개황

2020년 시장 물가·환율의 전반적 추세를 쌀가격과 북한원/달러 환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그림 1]은 2016년 이후 북한시장의 쌀가격과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2020년 시장 쌀가격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국경을 봉쇄한 직후인 2월 초에 급등하였다가 5월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하여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의 추세를 보면, 출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데일리

[그림 1] 시장 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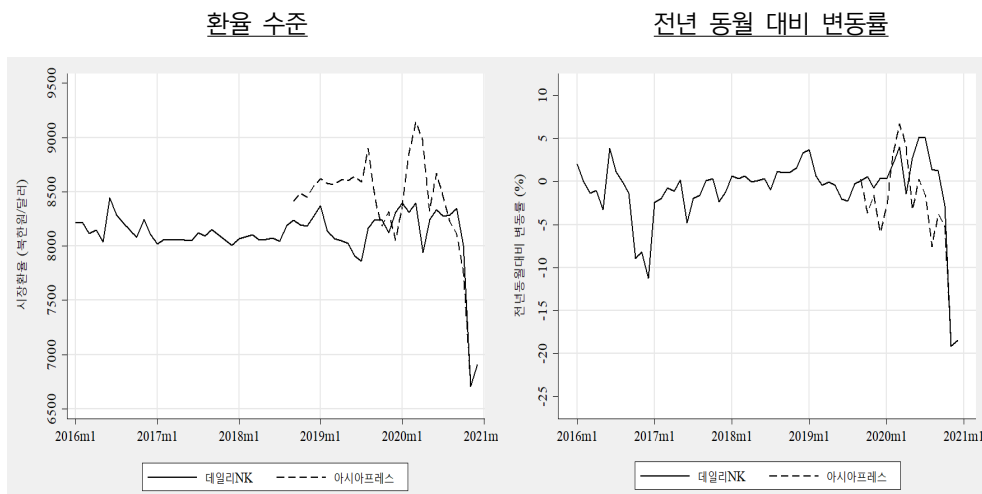
주: 데일리NK는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의 평균 가격임.
자료: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NK 자료에서는 2017년에 쌀가격이 급등하였다가 2019년에는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 대북제재가 강화되던 기간 심리적 불안 등으로 쌀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식료품은 주로 국내에서 공급되고 2017~19년중 대중수입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국경지역의 자료를 조사하는 아시아프레스의 경우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아 대북제재 강화의 충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2019년 3/4분기 급등하였다가 4/4분기 하락하는 추세로 데일리NK와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

시장 쌀가격 추이로만 판단하면,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보건위기는 북한경제에 대북제재 강화와 유사한 충격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쌀가격은 5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지난해 시장의 곡물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시장물가의 품목별 동향에서 살펴보겠지만, 북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가격은 2020년 중에도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난다. 단, 밀가루 등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곡물가격 상승이 제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2020년 곡물수급 여건을 결정하는 2019년 곡물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2%, 농업진흥청 추정치)하였다. 따라서 2020년 2~4월 시장 쌀가격 상승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심리적 불안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panic buying) 등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북한시장의 변동성도 일시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곡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그림 2] 시장 북한원/달러 환율



주: 데일리NK는 평양, 신의주, 해산 지역의 평균 가격임.
자료: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났다. 물론 북한은 식량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식량공급 가운데 ‘미충당부족분(uncovered deficit)’의 일부를 상업적 수입이나 국제지원의 형태로 조달해야 한다. 2020년에는 다른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곡물수입도 급감하였으나, 대북제재 강화 이후인 2017~19년 중 크게 증가하였던 대중 곡물수입 일부가 2020년에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북한 당국이 한도가격을 부과하는 등 시장가격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쌀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4월에는 가격통제와 관련한 언론보도들이 잇따르기도 했다. 직접적인 가격 통제뿐만 아니라 식량공급량에 대한 개입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북한에서 식량은 시장뿐만 아니라 PDS(public distribution system)를 통해서도 분배되기 때문이다. 즉, PDS를 통해 식량공급을 확대하면, 일부가 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시장환율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자. 시장 쌀가격에 비해 시장환율은 대북제재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시장환율의 추세 또한 출처에 따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원/달러 환율은 4월 말에 하락한 이후 곧바로 반등했으나, 10월 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시장 쌀가격이 급등했던 2~4월 북한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5월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반기 중에는 데일리NK와 아시아프레스의 북한원/달러 환율 추세가 상이한 모습을 보였지만, 두 자료 모두 10월 말 들어 급격한 평가절상을 보여주고 있다.

데일리NK 자료에 따르면 2~4월 중 시장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환율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시아프레스에서는 같은 기간 시장의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시아프레스는 주로 국경지역(양강도, 자강도)의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데일리NK와 아시아프레스 모두에서 시장환율은 4월 말~5월 중 대체로 하락한 이후 반등하는 모습이나, 10월 말에는 급격한 하락을 나타낸다.

2020년 중 시장환율이 하락한 요인으로는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시장 요인으로는 국제시세의 변동과 무역수지 적자규모 감소의 영향을 들 수 있다. 5월 말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위안화 국제시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북한시장의 북한원/위안 환율이 하락하면서, 북한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4장에서 후술하겠지만, 2020년 2/4분기 북한원/달러 환율과 북한원/위안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고, 위안/달러 시세 변동도 국제시세의 영향을 받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월 말 이루어진 국경봉쇄가 3월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되기는 했으나, 북중무역은 전년 대비 80% 정도 급감하였다.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수출입이 동반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북한시장에서 외화수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한 당국의 정책개입에 따른 결과이다. 4월 말과 10월 말의 평가절상 모두 정책개입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는데, 특히 10월 말의 평가절상은 단기간 급격하게 나타난 점, 국제시세와 크게 괴리된 점을 이유로 북한 당국의 정책개입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 당국이 시장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환율 결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가설로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곡물 이외에 다른 식료품 가격이 대체로 상승한 점,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이후 공식환율을 공표하고 있지 않은 점, 시장의 환율시세가 국제시세와 크게 괴리되고 있는 점, 이외에 정책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론보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하게 후술하도록 하겠다.

III. 시장물가

시장물가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정제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곡물가격의 경우 주식에 해당하는 쌀, 옥수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곡물 외 식료품의 경우,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신선식품 가격은 기상 여건 악화가, 가공식품 가격은 원자재 수입 감소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정제유 가격은 국제유가 급락, 코로나19에 따른 대내 경제활동 위축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농축수산물 가격

[곡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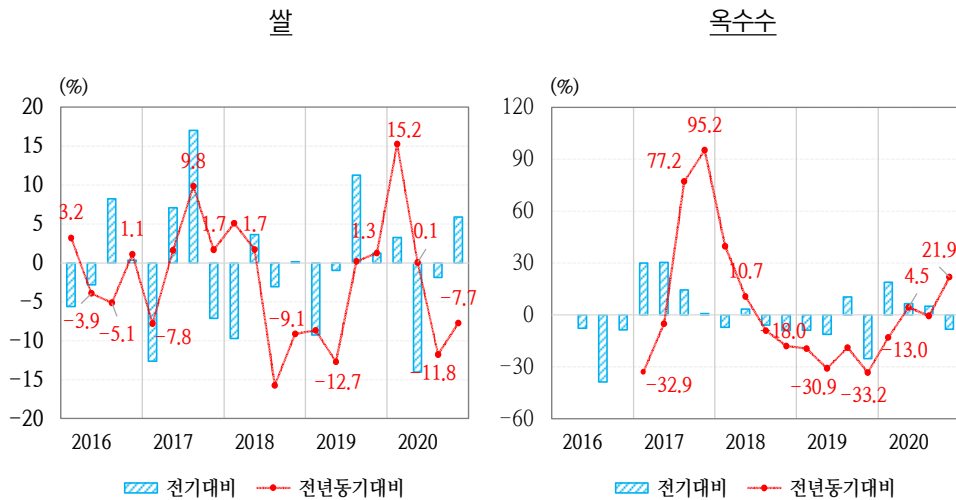
2020년 중 북한시장의 쌀, 옥수수 가격은 1/4분기 상승하였으나, 이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4/4분기에 가을 수확이 이루어지고 나면, 1/4분기까지 곡물가격

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시장 내 비축수요 증가로 이어져 1/4분기 곡물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이후 추세를 보면, 대북제재가 강화되던 2017년에 쌀과 옥수수의 시장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018년 3/4분기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하여 2019년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졌다. 2020년에도 2/4분기 이후 주요 곡물의 시장가격은 안정세를 회복하였기 때문에, 시장에 곡물공급을 의존하는 북한가계의 식량사정이 크게 나빠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0년 곡물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한 요인을 살펴보자. 우선, 2/4분기 이후 곡물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북한 당국이 한도가격을 부과하는 등 가격을 적극적으로 통제한 결과일 수 있다.¹⁾ 만약 가격통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정책개입이 유효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곡물 수급이 크게 불안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20년 주요 곡물의 시장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한 주된 원인은 2019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데 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북한의 2019년 곡물생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하였고, 쌀과 옥수수는 각각 4만톤, 2만톤 증가하였다(표 1 참조).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가격상승 요인은 별달리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의 대중 곡물수입이 대북제재 강화 직후인 2017~19년 중

[그림 3] 북한시장의 주요 곡물가격



주: 평양, 신의주, 해산 지역 평균 가격임.
 자료: 『데일리NK』, 「북한장마당 동향」(쌀가격은 2020년 12월 말, 옥수수 가격은 11월 말 기준).

1) 『데일리NK』, 「북한, 국경봉쇄로 시장 물가 오르자 관리 동원 가격 통제 나서」, 2020. 2. 11.

<표 1>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치(2014~20년)

(단위: 만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곡물 총 생산	480	450	481	471	455	464	440
(전년 대비, %)	(-0.2)	(-6.3)	(6.9)	(-2.1)	(-3.4)	(2.0)	(-5.2)
쌀	216	202	222	219	220	224	202
옥수수	172	164	170	167	150	152	151
서류	56	50	55	53	54	57	54
맥류	17	16	17	15	15	15	16
두류, 기타 잡곡	19	18	17	17	16	16	17

자료: 농촌진흥청.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가 2020년에 시장에 유입되었을 개연성도 있다. 한편, 최근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 당국은 향후 2~3년간 국가의무수매 계획의 기준을 2019년을 수준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2019년 곡물생산량은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2021년 북한시장의 곡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인가? 공급 측면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농촌진흥청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2020년 곡물생산량은 장마와 태풍 피해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여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기상 여건 악화 뿐만 아니라, 국경통제 강화로 비료 등 농업 원자재 수입이 급감한 것도 2020년 농업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곡인 쌀의 생산량은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옥수수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제시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세하다. 기상 이변과 팬데믹 여파로 국제곡물시장의 공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식량의 국제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곡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들을 감안하면, 북한시장의 곡물수급은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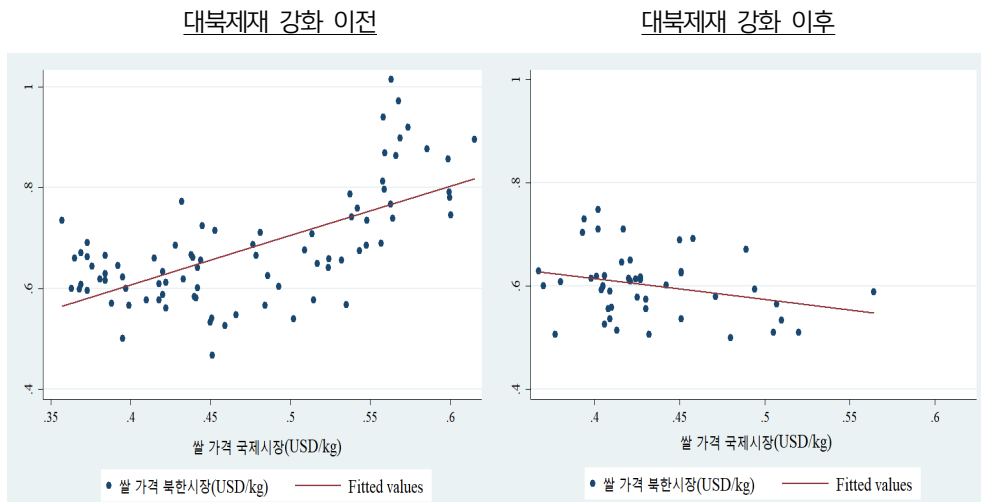
다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2012~20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평균 465.8만톤(농촌진흥청 추정치 기준)으로, 2000년대에 비해서 평균 42.6만톤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 곡물생산량은 역시 수해 피해가 극심하였던 2007년(400만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²⁾ 통일부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은 2007년 이후 가장 큰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2007년 쌀과 옥수수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19.4%, 9.4% 감소한 바 있다. 따라서, 2020년

2) 종인구 대비 곡물생산량을 환산한 경우, 2012~20년 평균은 184kg으로, 2001~09년 평균(177.5kg)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2020년과 2007년을 직접 비교하면 각각 170.7kg과 165.6kg이다. 물론 곡물생산량은 식량, 사료, 종자 등으로 각각 사용되기 때문에, 종인구 대비 곡물생산량이 식량 수급 여건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식량수급 여건은 식량농업기구(FAO)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되었으나, 2014년 이후 북한 당국이 FAO의 실사를 거부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안보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생산량 감소(9.8%, 0.7% 감소)는 2007년 대비 적은 편이다. 즉, 북한의 식량수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추세에서 2020년 곡물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식량부족 상황을 1990년대 중반이나 2000년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곡물생산량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인구가동에 대한 통제 강화 등으로 비추어 북한인구의 식량 상황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계층 및 지역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곡물의 국제시세도 북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7~08년 국제시장의 곡물가격 급등은 북한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바 있고, 특히 2007년 수해 피해와 중첩되었던 점은 최근 상황과 유사하다. 다른 점은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시장의 가격 추세가 국제시세와 괴리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까지는 곡물생산량의 전반적인 증가, 대중 곡물수입 증가, 북한 당국의 PDS를 통한 개입 등으로 이러한 설명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2021년의 경우 곡물 공급이 대체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림 4] 대북제재 강화 전후 북한시장과 국제시장 곡물가격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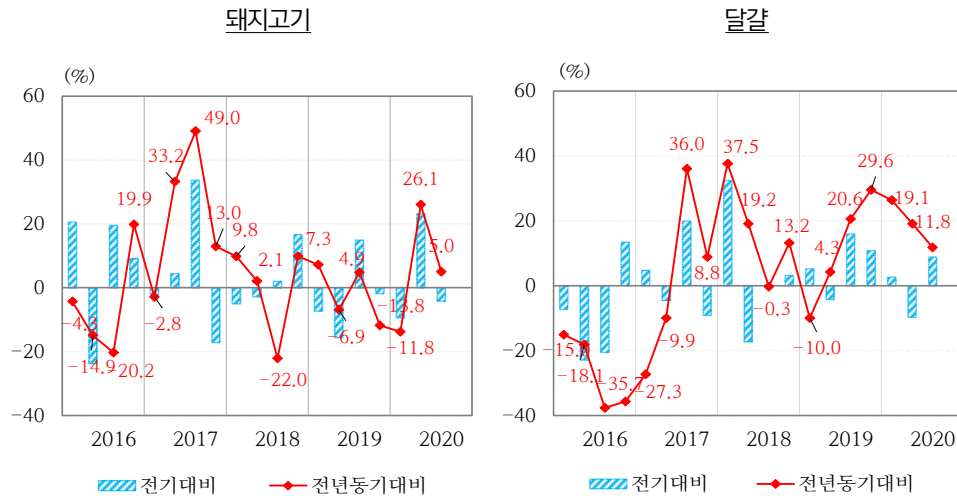


주: 북한시장 달러 표시 쌀가격은 평양, 신의주, 해산 지역 평균 쌀가격(북한원/kg)과 북한원/달러 환율(달러/북한원) 적용하여 시산함.
자료: 데일리NK; 「북한장마당 동향」; World Bank.

[육류 및 달걀]

2020년 돼지고기, 달걀의 시장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가격은 2017년 이후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은 2017년 2/4분기 이후 상승하는 추세³⁾이며, 달걀 가격도 2017년 3/4분기 전후를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2020년에도 이들 품목의 가격이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곡물가격의 안정화 추세와는 상반되는 점이다. 주요 곡물과 정제유 이외의 품목들의 경우, 2020년 자료는 3/4분기까지의 자료만 입수되어 있는데, 4/4분기에는 북한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10월 말 이후 북한시장의 쌀, 옥수수, 정제유 가격은 환율이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5] 북한시장의 육류·달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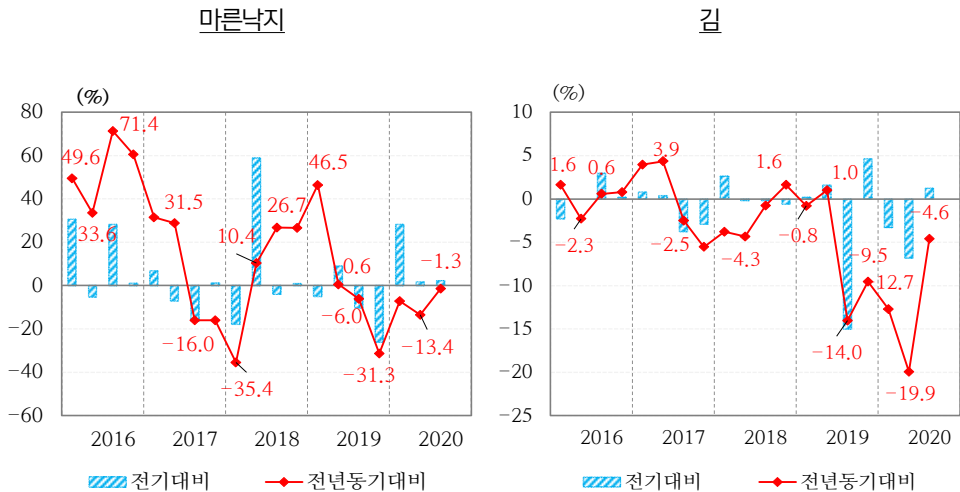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각 호.

3) 2018년 3/4분기는 하락은 기저효과로 보이며, 2019년 2/4분기 하락(-6.9%)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보인다.

[수산물]

수산물의 경우에는 육류, 달걀류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시장 내 식료품 가격은 대체로 2017년 중 상승했다가 2018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수산물 가격이 대체로 상반된 움직임(2017~18년 상반기 중 하락세)을 보인 것과 유사하다.⁴⁾ 『북한농업동향』은 냉동명태, 마른낙지, 김, 미역의 수산물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들은 2017년에도 안정세를 유지했거나, 상승폭이 제한적이였다. 2020년에도 돼지고기, 달걀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과 달리, 마른낙지, 김 가격은 대체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그러나 모든 수산물 가격이 일괄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냉동명태 가격은 2020년 3/4분기 말 기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6] 북한시장의 수산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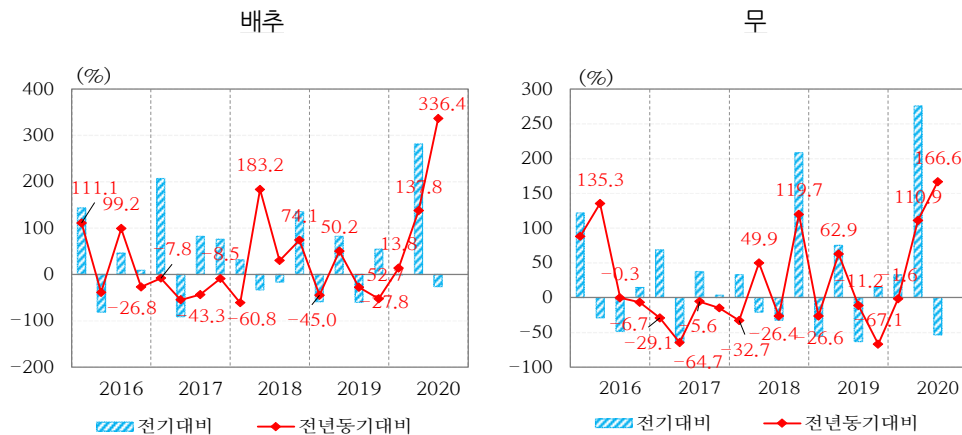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각 호.

4) 2019년 북한시장의 물가 분석에서는 대북제재 강화 이후 수산물 수출금지에 따른 내수 전환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수출 품목과 가격 변동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신선식품]

신선식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되며, 북한의 경우 수출입과도 큰 연관성이 없다. 또한 품목의 특성상 기후 여건에 따른 공급 변화가 심하고 비축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에 급등락한다는 일반적인 특징을 갖는다. 아래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시장의 신선식품 가격은 대북제재 전후의 경향성을 크게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상승이 뚜렷하다. 이는 지난 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신선식품의 공급에 차질이 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북한시장의 신선식품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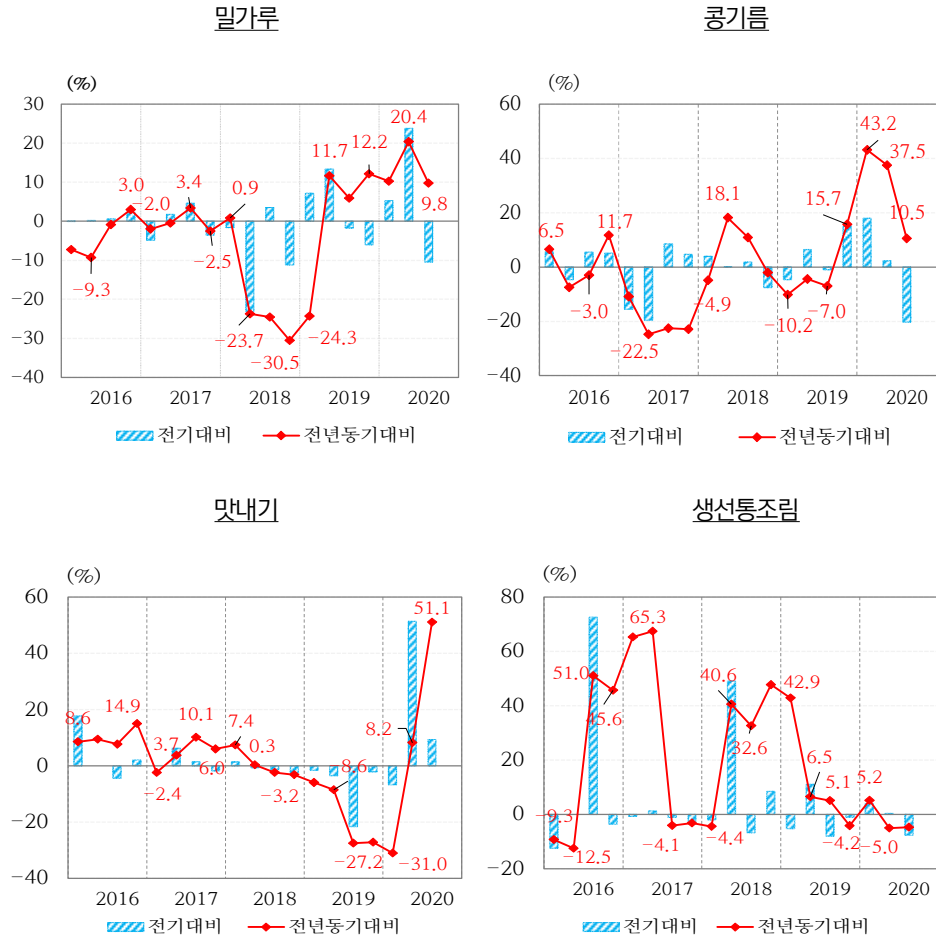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각 호.

2) 가공식품 가격

『북한농업동향』은 밀가루, 조미료(고추장, 맛내기, 소금, 된장, 간장), 설탕, 사탕, 과자, 생선통조림, 과일통조림 등의 가공식품 가격을 포함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중국산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 중량이나 상표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농축수산물과 달리 수입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종재 형태로 수입될 수도 있고, 원자재가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예를 들어 지난 해 밀가루, 밀가루 국수의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사탕·과자의 가격은 수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해 북한이 국경을 통제하면서 수입이 전년 대비 80% 감소하였고, 밀가루는 그나마 수입을 유지한 품목에 해당하지만 수입액은 전년 대비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주요 대중수입 소비재 가운데 하나인 콩기름의 경우에도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맛내기, 고추장, 맥주 등의 가격이 대체로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가공식품의 가격이 일괄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며, 생산통조림, 된장 등의 품목은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20년 3/4분기 기준).

[그림 8] 북한시장의 가공식품 가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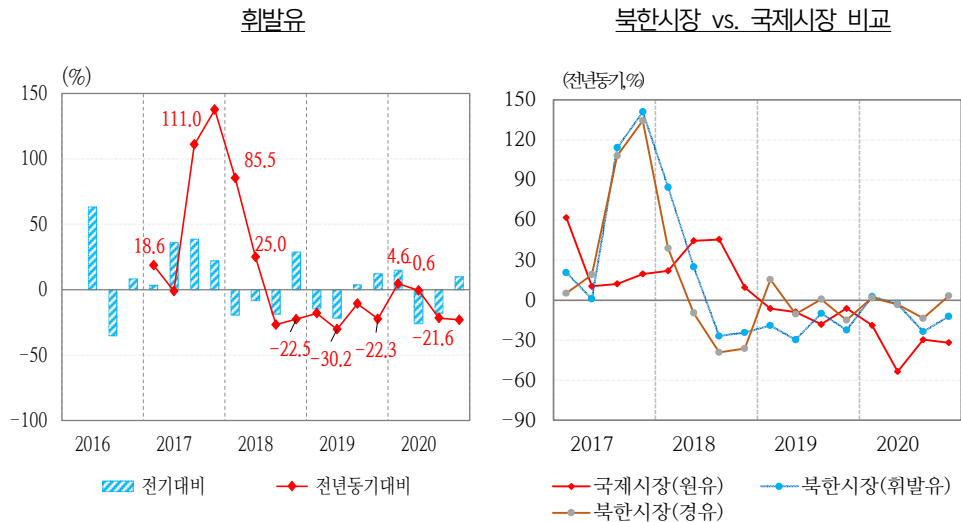
이상으로 북한시장의 식료품 가격들의 2020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곡물이 2/4분기 이후 안정화된 것과 달리, 육류·달걀, 신선식품, 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가격이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 상승의 경우, 신선식품은 지난 해 기상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가공식품은 부분적으로 수입규모 급감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신선식품의 경우, 가격이 급등락하는 품목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 가계의 생활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21년에는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곡물·수산물을 제외한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의 상승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북제재 강화로 2017~18년 상반기 비교적 상승했던 물가가 2018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한 바 있고, 이는 북한이 소비재 및 중간재 수입을 대북제재 이전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수입규모가 급감하면서 북한가계에 대한 소비재 공급이 축소되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상승했을 개연성이 있다. 일반적 상황이라면 수입 감소가 내수 공급 증가로 인하여 상쇄될 가능성도 있지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입 감소에 따른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은 최종재 형태의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북한의 식료가공업 전반에 수입원자재 공급이 줄어든 결과일 수 있다. 밀가루, 대두유는 수입규모 감소 폭이 그나마 적은 품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 때, 수입 감소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잘 설명된다.

이상과 같은 북한시장의 가격 변화는 북한 당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조정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곡물의 경우 북한 당국이 PDS를 통해 부분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그 외 품목의 경우에는 공급조절을 통한 가격개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곡물 이외의 품목도 부분적으로 계획을 통해 배분된다. 그러나 국영상업망을 통해 유통되는 소비재들도 시장가격에 준하여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기업소 지표에 대해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부여한 조치를 감안하면, 시장가격에 근거한 소비재 공급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하겠다. 반면, 곡물의 경우 협동농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매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비해 정책개입이 용이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일부 식료품의 가격만을 이용하였지만, 관찰되지 않은 소비재 가운데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수입소비재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면, 환율 하락을 통한 물가안정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3) 정제유 가격

정제유는 쌀과 마찬가지로, 북한시장에서 가격이 비교적 민감하게 변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강화의 수입상한선 부과가 공급 축소로 이어져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제재의 직접적 충격을 받는 품목이다. 지난해 1/4분기 시장의 휘발유 가격은 쌀가격과 마찬가지로 상승하였으나, 2/4분기 이후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4분기 전체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쌀가격과 마찬가지로 2월 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데일리NK 조사에 따르면, 2월 초 쌀과 휘발유 가격은 직전 조사일 대비 각각 28.7%, 19.2% 상승한 바 있다. 휘발유 가격은 4월 말에도 한 차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국제유가의 급락과 전반적인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국제유가는 2019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고, 2020년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북한시장의 정제유 가격 하락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의 특성상 이동이 감소하고, 생산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정제유에 대한 수요 감소가 2/4분기 이후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 북한시장의 정제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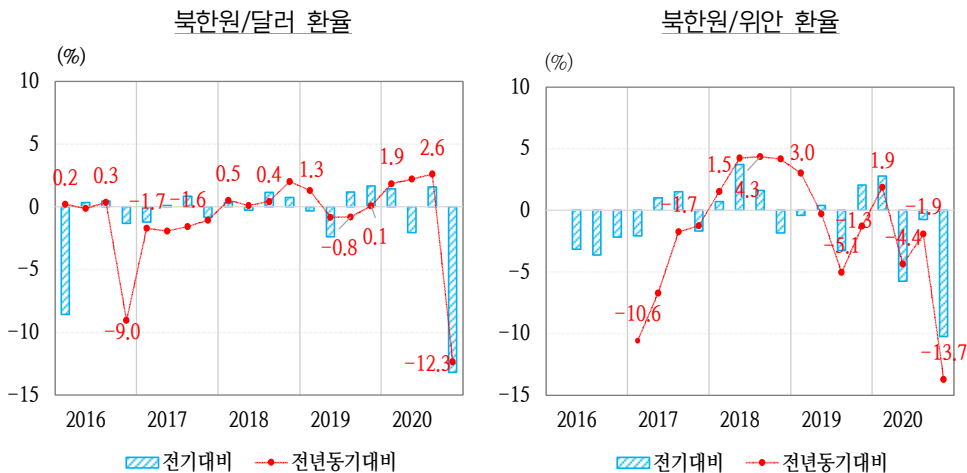


자료: 북한시장의 휘발유, 경유 가격은 『데일리NK』 기사를 인용(2019. 12. 22. 기준); 국제시장 원유 가격은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의 Crude oil average를 인용.

IV. 시장환율

지난 해 북한시장의 환율은 2/4분기와 4/4분기에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4/4분기의 경우 북한원/달러와 북한원/위안 환율 모두 10% 이상 하락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그림 10 참조). 대북제재 강화 직후 시장가격 상승이 부분적으로 관찰된 것과 달리, 시장환율은 2019년까지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2020년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시장의 물가·환율은 통상 동반 상승·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2020년 시장물가의 상승과 시장환율의 하락은 다소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0] 북한시장의 환율 추이



주: 평양, 신의주, 해산 지역 평균 가격임.
자료: 북한시장의 북한원/달러, 북한원/위안 환율은 『데일리NK』, 「북한장마당 동향 자료」(분기 평균)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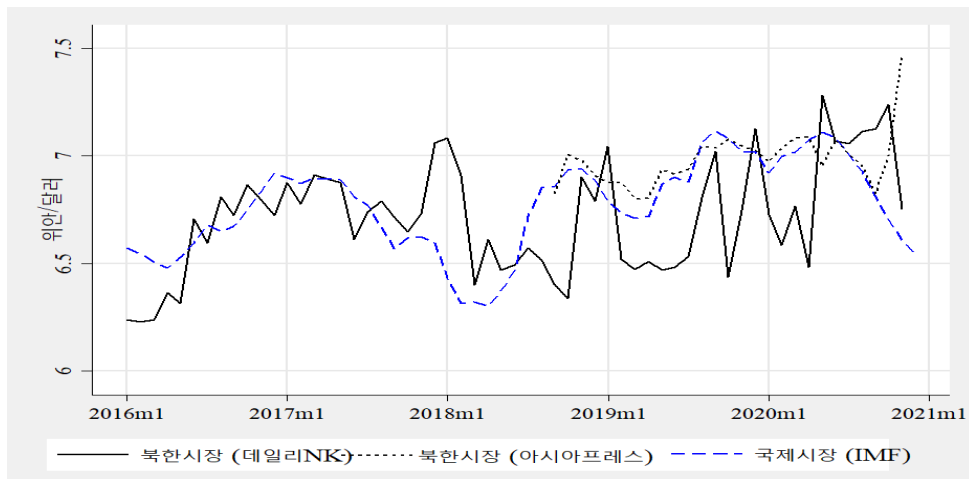
2020년 북한시장의 환율 하락은 국제시세의 변동, 무역수지 적자 감소, 북한 당국의 정책개입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2020년에는 수입규모가 급감하면서 대북제재 강화 이후 누적되었던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즉, 대중수입에 필요한 외화에 대한 수요가 북한시장 내에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시세의 변동은 2/4분기 북한원/달러 환율과 북한원/위안 환율의 동반 하락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5월 말 두 차례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는데, 이로 인해 북한원/위안 환율이 하락하고 국제시세를 반영하여 북한원/달러 환율이 조정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11]을

보면, 5월 중 위안/달러의 국제시세가 급등했을 때 북한시장에서도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는 등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2/4분기의 경우 북한 당국이 외화수급에 정책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술하였듯이, 2~4월 중 북한시장의 물가는 급등한 바 있는데, 북한 당국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내화와 외화의 유동성 조절을 통해 시장환율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4월 말 시장환율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이후 곧바로 반등한다. 4월에는 공채 및 수입쿼터의 외화 판매, 수입 품목의 제한 등 외화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 당국의 각종 조치에 대한 언론보도들이 잇따르기도 했다.⁵⁾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소식들은 외화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이 시범적으로 단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들이다.

2/4분기 환율 변동은 국제시세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되지만, 4/4분기의 변동은 국제시세의 영향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데일리NK와 아시아 프레스가 각각 전혀 다른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은 2016년 이후 북한시장의 위안/환율 시세를 국제시세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데일리NK 자료에서는 2018년 하반기 이후 북한시장에서 상대적 위안화 강세가 나타났다가, 국제시세와 격차가 해소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시계

[그림 11] 위안/달러 환율(북한시장 vs. 국제시장)



주: 데일리NK 자료는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 월별 평균 위안/달러 환율임.
자료: 『데일리NK』, 『북한장마당 동향 자료』(월별), 아시아프레스, IMF

5) 『데일리NK』, 「北, 공채 준비 완료... 각 기관에 20일부터 매일 지시 하달」, 2020. 4. 21; 『데일리NK』, 「북한 당국, '코로나로 올해 말까지 수입 제한' 전민에 하달」, 2020. 4. 22; 『데일리NK』, 「北, 내달 15일 對中무역 일부 허용 방침 ..'외화로 허가증 구입해라」, 2020. 5. 29.

열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국제시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가, 북한시장의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10월 이후 국제시세와의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10월 말 북한시장의 환율 하락은 국제시세와 같은 시장 요인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단기간 환율이 급락했다는 점, 외화 사용과 관련한 언론보도⁶⁾가 잇따랐다는 점 역시 북한 당국의 정책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 당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환율 결정에 개입했는지, 혹은 시장환율 하락이 다른 정책의 결과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3/4분기까지 곡물, 수산물 등을 제외한 시장물가 전반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북한 당국의 공식환율이 2020년에 제대로 수집되지 않고 있다는 점,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가격과 국정가격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 북한 당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당국이 시장환율 결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 12]는 북한의 공식환율 추이를 보여준다. 북한의 공식환율은 독일연방은행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지난 해 3월과 7월 이후 환율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독일연방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후 북한환율은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입수되는데, 2020년 3월에 수집되지 않았고 7월 이후에도 수집되지 않고 있다. 독일연방은행은 보고서에서 “2020년 7월 이후 자료가 없다(We have no exchange rates for the won as of July 2020).”라고만 기록하고 있다.⁷⁾

2010년 이후 북한의 공식환율 추세는 달러인덱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달러의 평균 가치)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⁸⁾ 지난 해 4~6월에는 달러인덱스 하락에 맞추어 북한의 공식환율을 109.63북한원/달러(4월)에서 107.71북한원/달러(6월)으로 조정했으나, 그 이후로는 자료가 수집되지 않고 있다. 물론 무역이 크게 급감한 상황에서 무역환율을 고시할 필요성이 축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의 공식환율이 집계되지 않는 시기가 시장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와 중첩된다는 점은 공교롭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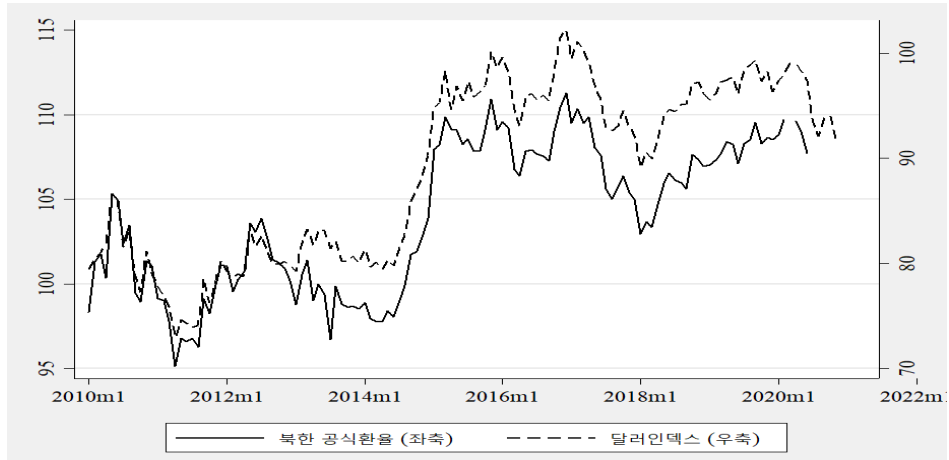
아직까지는 북한 당국이 공식환율을 조정했는지 여부, 공식환율은 유지한 채 시장환율 결정에만 개입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시장환율의 상한을 인위적으로 설정했는지 혹은 내화와 외화의 유동성을 조절하여 시장환율 결정에 개입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경로를

6) 『연합뉴스』, 「북한, 외국인에 달러 대신 원화 사용 요구…일일 한도도 제한」, 2020년 10월 30일, 『파이낸셜 뉴스』, 「경제난 불안한 김정은 北 거물 환전상 처형」, 2020년 11월 27일.

7) Bundesbank “Exchange Rate Statistics,” December 2020, p.54.

8) 월별 달러인덱스와 북한 공식환율의 로그값을 이용하여 그랜저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로그달러인덱스 변동 → 로그북한공식환율 변동의 인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북한의 공식환율 추이



주: 북한 공식환율은 'transfer rate'의 'middle' 값임.
 자료: 북한 공식환율(독일연방은행); 달러화 인덱스(www.investing.com).

파악하기도 어렵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의 외화유통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외화수요가 감소하여 시장환율이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15년 중앙은행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중앙재정지도기관(재정성)이 갖던 기준환율 결정권한을 중앙은행이 갖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고, 경제연구 등 북한문헌에서는 자국화폐 가치의 안정을 위한 환율시세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북한식 개혁과 동반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생산단위들은 외화예금(외화돈자리)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장환율에 준하는 '협동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를 내화로 환치(이체)하는 것도 가능해졌다.⁹⁾ '협동환율'을 매개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협동환율'에 대한 상한선 부과 등의 개입을 통해 역으로 시장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환율조정이 경제주체들의 이해와 배치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책개입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사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시장의 외화수급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면, 현재와 같이 상품의 국제적 이동뿐만 아니라 인적 이동도 통제된, 북한경제가 폐쇄경제에 가까운 상황에서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제시세와의 격차,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9)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세종: 산업연구원, 2018.

지역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된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무역이 재개되거나 북한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이 더 이상 어려워지는 경우, 이러한 불균형이 청산되면서 시장환율이 급격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V. 평가 및 전망

지난 해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 변동성은 전년 대비 확대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삼중고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경제적 충격에 직면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심리적 불안은 주로 1/4분기 곡물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상대적인 가격 상승에는 자연재해와 무역중단에 따른 영향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제재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했던 시장환율이 지난 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도 외화수급과 관련한 새로운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20년 시장의 물가와 환율 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북한 당국의 시장개입을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설명했다. 첫째, 식료품 가격의 전반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곡물가격은 2/4분기 이후 안정되고 있다. 물론 2019년 곡물생산량 증가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겠지만, 곡물수급부문은 북한 당국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이고, 결과적으로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3/4분기 기준 곡물을 제외한 식료품의 시장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북한 당국이 환율 평가절상을 시도한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두 달 가까이 환율 하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폐쇄나 화폐개혁과 같은 극단적인 정책개입이 아니라는 측면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2000년대 시장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잇따른 정책실패의 경험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북한식 금융개혁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부분적으로 복원하고, 전자카드 도입으로 결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식부문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중앙은행법 개정을 통해 기준환율 결정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삼중고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화폐가치가 폭락하지 않은 것은 대북제재 강화 이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한 부분적 개혁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장기화와 보건위기로 인한 북한경제의 생산위기와 외화부족을 근본적으

로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21년 시장의 물가·환율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지난 해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가격은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무역이 재개된다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지만, 자연재해로 곡물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곡물의 시장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기에 제반 여건들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또한 지난 해 수입 감소가 북한경제의 외화부족 상황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가공식품을 비롯한 수입소비재, 수입원자재의 공급 감소는 시장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시장환율 결정에 대한 정책개입이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결과적으로 국제시세 등 시장 요인을 반영하여 환율 수준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유례없는 보건위기와 대북제재, 자연재해가 중첩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2020년 북한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폭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0년대 중반이나 2009년 화폐개혁 이후에 비해서는 안정된 상황을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북한식 개혁이 물가·환율 변동성이 증폭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는 경제주체들에게 유인을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 변화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의 통일적 관리’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제관리 방향을 제시한 점은 기존의 개혁이 부분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향후 북한 당국의 정책개입이 경제주체의 유인을 크게 위축시키고 시장거래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성을 심화시켜 주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최지영, 「최근 북한시장의 물가 및 환율 동향」, 『온라인시리즈』, 통일연구원, 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북한농업동향』, 각 호.
이석기·권태진·민병기·양문수·이동현·임강택·정승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세종: 산업연구원, 2018.

<웹사이트>

데일리NK(<http://www.dailynk.com>, 접속일: 2021. 1. 15).

아시아프레스(<https://www.asiapress.org/korean/>, 접속일: 2021. 1. 15).

IMF, Exchange Rate Archives by Month(https://www.imf.org/external/np/fin/data/param_rms_mth.aspx, 접속일: 2021. 1. 15).

The World Bank, Commodity Markets(<https://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 접속일: 2021. 1. 15).

Investing.Com. (<https://www.investing.com/currencies/us-dollar-index-historical-data>, 접속일: 2021. 1. 15).

독일연방은행(<https://www.bundesbank.de/en/statistics/exchange-rates>, 접속일: 2021. 1. 15).